

■ 우려했던 상황 결국... / 제주 최대 도심지 연동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마트는 문 닫고 방문장소 방역 안간힘

주민들 확진자 동선 확인 분주... “이제야 위험 실감”

코로나19 제주 4번(46세 남성) 확진자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제주시 연동을 주로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수천명이 이용하는 마트를 여러차례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오전 8시 서브웨이 제주연동 신시가지점 안에는 방역당국이 점주와 함께 CCTV를 보며 확진자와 접촉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이 매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쯤 4번 확진자가 방문했던 곳이다.

매장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 맞은편에는 대형 아파트단지가 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굳게 닫힌 매장 안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주민 A씨는 “아들이 자주 이용하는 매장이라 확진자 동선을 확인했는데, 다행히 겹치지는 않았다”며 “집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와 멀게만 느껴졌던 코로나19가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찾은 뉴월드마트 신제주점에서는 소독작업을 마치고 밖에 있는 물품들을 매장 안으로 들여놓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곳은 4번 확진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9시 58분 방문했고, 27일 오후 5시15분에는 확진자와 함께 생활했던 지인이 찾았던 곳이다. 하루 매장 방문객

은 2000~3000명으로 전해졌다. 뉴월드마트 관계자는 “4일 오전 3시20분쯤 제주도로부터 확진자가 통보돼 오전 4시 매장에서 역학조사관과 CCTV를 확인했다”며 “하지만 소독을 하는 업체가 새벽에 문을 열지 않아 보건소를 통해 소개 받은 업체를 겨우 섭외해 아침에야 소독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

의 안전을 위해서 임시폐쇄 결정을 내렸으며 재영업은 행정에서 결정한 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번 확진자가 지난달 23일 오전 11시24분쯤 방문한 제주은행 신제주점 ATM도 폐쇄돼 있었다. 다행히 ATM기 공간과 창구의 연결 통로가 문으로 닫을 수 있는 구조라 창구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옆에 있는 제스코마트 신제주점(2월

21일 오후 6시7분·3월 1일 오후 6시 49분 방문) 역시 입구에 ‘금일 영업 중단 안내’ 문구를 적은 종이를 붙여 놓고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었다.

제스코마트에서 장을 보려던 정모(34)씨는 “자주 이용하는 매장인데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 깜짝 놀랐다”며 “확진자와 동일한 시간대는 아니지만 같은 날짜에 매장을 방문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코로나19 네번째 확진자가 나온 4일 확진자가 다녀갔던 제스코마트신제주점이 임시휴업과 동시에 방역작업을 하고있다.

이상국기자

도, 제주 4번 확진자 동선 공개

현재 확진자와 접촉한 14명 자가격리 중 대구~제주 항공기 승객도 격리대상 포함

코로나19 제주 4번(46세 남성·제주도민) 확진자의 역학조사 범위가 넓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가 역학조사에서 4번 확진자가 최초 증상 발현일을 기준 ‘2월 22일’에서 ‘2월 21일’로 진술을 바꿈에 따라 접촉자 조사 기준일을 2월 20일로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4번 확진자가 2월 22일 몸살 기운으로 감기약을 복용

한 사실을 확인, 2월 21일을 기준으로 접촉자와 동선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4일 추가 조사에서 2월 21일 두통 증상으로 두통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하자 기준일이 2월 20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월 20일 오후 6시25분 4번 확진자가 탑승한 대구발 제주행 대한항공 KE1811편 승객과 승무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이 되는대로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자치도는 4번 확진자가 2월 28일 방문했던 서브웨이 연동점에서 8명과 접촉(직원 5명·손님 3명)한 것을 확인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현재 4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인원은 14명이다.

다음은 제주 4번 확진자 동선. ▶2월 18일~20일 2박 3일 동안 대구광역시 체류 ▶2월 20일 ▷오후 7시33분 대구 출발 대한항공 KE1811편으로 제주 입도 ▷오후 8시 공항에 주차한 본인 오토바이로 제주시 연동 소재 지인 집으로 이동 ▶21일 ▷오후 6시7분 제스코마트 신제주점(직원 2명 자가격리) ▶22일 두통, 근육통 등 증상으로 약 복용(커피로 배탈 받음) ▶23일 ▷오전 11시24분

제주은행 신제주점 ATM기 이용 ▶24일 ▷오후 9시58분 뉴월드마트 신제주점(직원 1명·손님 2명 자가격리) ▶25일 ▷오후 1시50분~2시11분 한라병원 선별진료소(화상 진료 후 귀가) ▶26일 지인 집 체류 ▶27일 ▷오후 5시15분 확진자 지인이 뉴월드마트 신제주점 방문(4번 확진자는 지인 집에서 체류) ▶28일 ▷오후 2시16분 서브웨이 연동점(직원 5명·손님 3명 자가격리) ▶29일 지인 집 체류 ▶3월 1일 ▷오후 6시49분 제주스코마트 신제주점(직원 1명 자가격리·지인 대구로 떠남) ▶3월 2일 지인 집 체류 ▶3월 3일 ▷오후 5시 본인 오토바이로 제주대학병원 선별진료소 방문 후 코로나19 검체 검사. 송은범기자

공업용마스크가 보건용으로 둔갑...

코로나19 사태 악용 마스크 사기범죄 잇따라

경찰 판매사기 7건 수사중

제주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마스크 판매 관련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다른지방 유통업자인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공업용 마스크를 정식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 시켜 도내 마트 3곳에 1만1600개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업용 마스크 유통을 위해 정상적인 황사마스크에 필요한 보건환경연구원 발행 황사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와 식약청 발행 품목허가서 사진을 찍어 도내 마트 사업자에게 보내 속인것으로 드러났다.

물건을 받은 도내 마트 3곳은 공업용 마스크를 1개당 2200원씩, 총 2552만원 어치를 구입해 개당 3000원씩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도 이날 사기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B(38)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방역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한화 약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스크 물량이 전혀 없는데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지방경찰청도 사기 혐의로 중국인 C(33)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C씨는 지난달 초 중국 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 보건용 마스크 수십만장이 있다는 광고 글을 올려 중국인 4명으로부터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아 쟁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마스크 제조·판매 및 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도민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마스크 판매사기와 관련 7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도교육청, 내주부터 온라인 학급방 개설

개학 추가 연기에 따라 다음 주부터 온라인 학급방이 개설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학일이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후속 학습 지원방안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첫 주인 지난 2일부터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 유선망을 통해 배정학급과 담임 소개, 3월 학사운영 일정, 평가계획을 포함한 교육과정 안내가 실시되고 있다.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하

도록 했다. 휴업 중에도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 등 학생 위생 습관, 태백 생활요령 등이 수시로 안내된다.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관련 사이트는 에듀넷(https://edunet.net), EBS(https://www.ebs.co.kr),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reading.jje.go.kr), 제주진로진학지원센터(http://www.jje.go.kr/jinro/index.jje),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https://basic.jje.go.kr)이 있다. 전선희기자

테크노파크 임대료 30% 인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임대료를 30% 인하해 주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다. 입주중인 76개 기업의 임대료 부담은 매월 3700여만원에서 2600여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제주도 에너지공사
- 벤처기업
- 인공지능 기술보유
- 한화 Q-CELL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